



[상세내용]

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

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(hklee@kiep.go.kr, Tel: 3460-1069)

1. 배경
2. 최근 일본경제 동향
3. 2007~08년도 일본경제 전망
4. 맺음말

주요내용

- ▶ 일본경제는 2007년 중반부터 부정적인 대내외 요인에 따라 경기하강 압력을 받아왔으며, 최근에는 일본정부마저도 경기판단을 하향 수정함에 따라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가 방향을 전환하여 침체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▶ 일본경제는 2007년 4/4분기에 전기대비 0.9% 성장했으나, 2008년 1/4분기에는 경기둔화가 예상됨.
 - 작년 4/4분기 일본경제는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세에 힘입어 성장했으나, 금년 1/4분기는 수출요인 이외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대폭적인 경기둔화(-0.3~0.3%대)가 예상되고 있음.
- ▶ 2007년도 일본경제는 가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과 유럽에 대한 수출확대,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 등을 배경으로, 국내수요보다는 해외수요에 의해 견인되는 낮은 수준의 경기회복세(1.6% 정도)가 이어져옴.
- ▶ 2008년도 일본경제는 해외경제의 성장 감속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소비·설비투자가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체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.
 - 상반기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는 '상저하고(上底下高)'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
 -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, 시장전문가 간에는 2008년 중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- ▶ 한국경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문제, 해외경제 감속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바, 국내 수요 부문의 성장견인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.

1.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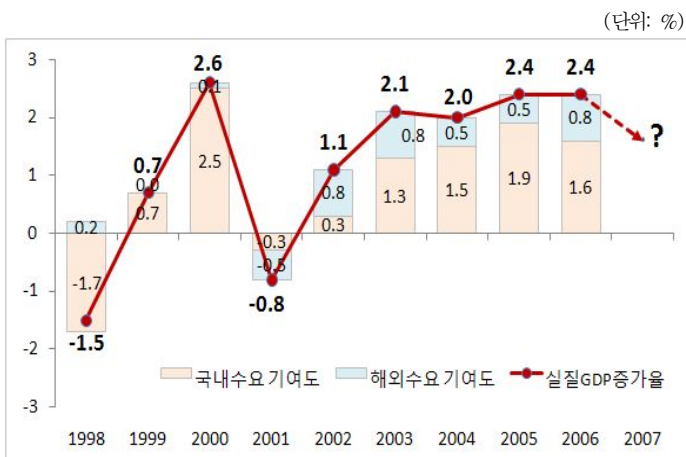
■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확장 국면을 보였으나, 2007년 중반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,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, 건축기준법 개정¹⁾에 따른 건축착공 대폭 감소 등의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 경기하강 압력을 받아왔음.

– 2002년 이후 일본경제는 국내수요에 의해 주도되면서 2%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옴(잠재성장률은 1%대 후반).

– 한편 2008년 2월 일본 내각부는 경기판단 기준을 1년 3개월 만에 하향 수정하였으며, 3월에도“경기회복이 최근 답보상태에 있다”고 발표함.

– 이에 따라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가 방향을 전환하여 침체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그림 1. 일본경제의 실질GDP증가율 및 내외수 기여도 추이



주: 각 년은 회계연도(당해 4월 ~ 이듬해 3월) 기준임.

■ 이하에서는 일본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경제 동향과 2008년 전망에 대해 살펴봄.

2. 최근 일본경제 동향

■ 일본 내각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실질GDP성장률 통계에 따르면, 2007년 4/4분기는 전기대비 0.9%(연율환산 3.5%)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(3월 12일 제2차 속보 기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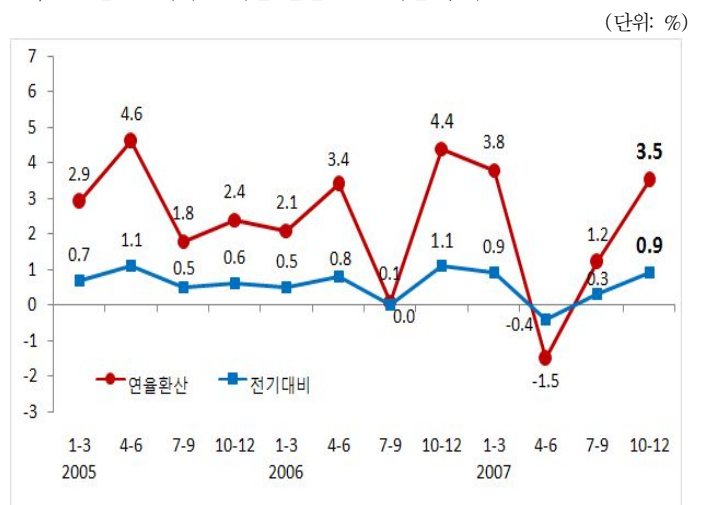
1) 2005년 말 발생한 아파트 내진설계 위조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7년 6월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물 확인 과정의 엄격화, 착공지연 등이 발생함.

– 2007년 4/4분기에는 건축기준법 개정¹⁾에 따라 민간주택투자가 대폭 감소(-9.3%)했으나, 민간소비의 견조세(+0.2%)와 설비투자(+2.0%) 및 수출(+3.1%)의 호조세가 경기확대를 견인함.

– 경제성장률 수치(0.9)에 대한 민간주택투자의 기여도는 -0.3인 반면, 수출의 기여도는 0.5였음.

– 이에 따라 2007년 2~4/4분기는 과거와 달리 해외수요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졌음.

그림 2. 일본경제의 분기별 실질GDP증가율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(2008. 3. 12).

표 1. 2007년도 일본경제의 실질GDP증가율 실적¹⁾

		(단위: 전년/전기 대비 %)			
		2006년도 (실적) ¹⁾	2007년도(실적)		
		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실질GDP 증가율		2.4	-0.4	0.3	0.9
	민간최종소비지출	1.7	0.2	0.1	0.2
	민간주택투자	0.2	-4.4	-8.3	-9.3
	민간설비투자	5.7	-1.6	0.9	2.0
	공적고정자본형성	-9.1	-4.1	-1.9	-0.4
	재화서비스 수출	8.4	1.1	2.9	3.1
	재화서비스 수입	3.1	0.5	-0.1	0.6
내수기여도		1.6	-0.5	-0.2	0.4
외수기여도		0.8	0.1	0.5	0.5

주: 1) 당해 4월 ~ 이듬해 3월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2007년도 전체의 GDP 지표가 나오지 않았음.

자료: 일본 내각부(2008. 3. 12).

■ 일본경제: 2008년 1분기 경기둔화 예상

– 신규주택착공이 2008년 1월 8만 6,971호(전년동월대비 -5.7%), 2월에는 8만 2,962호(동 -5.0%)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냄.

○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7년 7~12월간 매월 두 자릿수 감소(예컨대, 9월 -44.0%)와 비교해 크게 완화된 것임.

– 수출은 2008년 들어 1월 6조 4,084억 엔(전년동월대비 7.7% 증가, 무역적자 897억 엔), 2월 6조 9,754억 엔(동 8.7% 증가, 무역흑자 9,662억 엔)을 기록하면서 일본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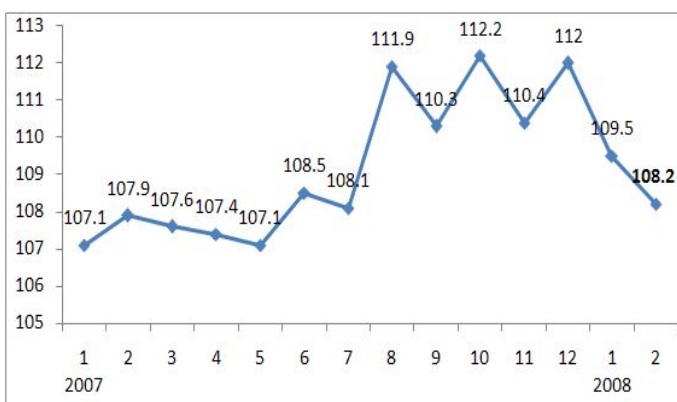
○ 대미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, 아시아·유럽·중동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·선박·철강을 중심으로 확대됨(2월의 경우 대미 -6.0%, 대아시아 +13.9%, 대EU +7.2%).

– 최근까지의 경기를 지탱해온 제조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, 광공업생산지수가 2008년 들어 미국경기 감소와 엔고 등의 역풍을 맞아 2개월 연속 하락함(2월 광공업생산지수 108.2).

○ 업종별로는 특히 전자부품 및 전자디바이스에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.

○ 경제산업성은 생산기조에 대해 2개월 연속 황보세로 판단함.

그림 3. 광공업생산지수 추이



자료: 경제산업성(2008. 3. 3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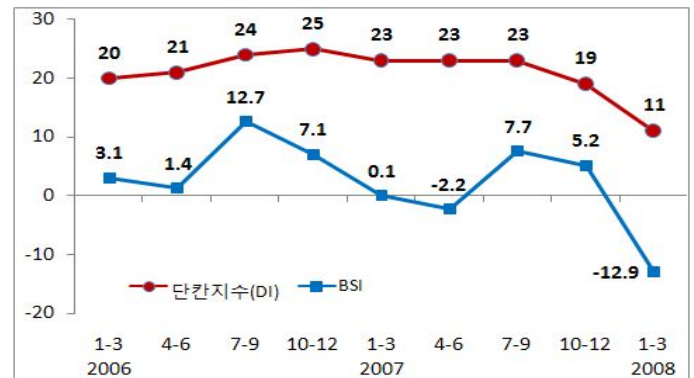
– 2008년 1분기(1~3월)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(DI)와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(BSI)의 지수가 전분기대비 대폭 하락(각각 -8%포인트 및 -18.1%포인트)함에 따라 기업의 체감경기 악

화가 뚜렷해짐(대기업·제조업 기준).

○ 이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수익환경 악화, 미국경기 감소, 엔고 등에 기인함.

○ 2분기(4~6월) 예상치에서 DI(단칸지수)는 7로 나타나 여전히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그림 4. 단칸지수(DI) 및 BSI 추이



주: 1) 단칸지수(DI)는 회답기업의 수익을 중심으로 한 경기판단이 '좋다'고 응답한 기업비율(%)에서 '나쁘다'고 응답한 기업비율(%)을 뺀 %포인트.

2) BSI는 회답기업의 경기판단에 대해 '상승'으로 응답한 기업비율(%)에서 '하강'으로 응답한 기업비율(%)을 뺀 %포인트.

자료: 일본은행(2008. 4. 1); 내각부(2008. 3. 24).

– 이처럼 2008년 들어 수출요인 이외의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최근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소는 2008년 1분기 GDP의 전기대비 -0.3~0.3%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바, 이는 2007년 4/4분기 0.9% 성장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.

3. 2007~08년도 일본경제 전망

<2007년도 일본경제 예측>

■ 2007년 1월 일본정부는 2007년도 일본경제가 2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, 12월에는 1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치를 크게 하향 수정하였음. 또한 2008년 3월 일본의 15개 민간연구소는 2007년도 경제성장을 평균 1.6%로 전망함.

– 이에 따라 2003년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2%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– 이러한 일본경제 성장의 감속은 1) 건축기준법 개정('07. 6)에 따른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, 2)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장기화, 3)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, 4) 임금소득 회복의 지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요인에 기인함.

■ 결국 2007년도 일본경제 기조는 가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과 유럽에 대한 수출확대,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낮은 수준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- 또한 2003~06년간 일본경제는 국내수요 주도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, 2007년도는 해외수요에 의해 견인된 한 해로 판단됨.

표 2. 2007~08년도 일본경제 전망

(단위: 전년/전기 대비 %)

	2007년도(예측)		2008년도(전망)	
	일본정부 ¹⁾	15개 민간 연구소 ²⁾	일본정부 ³⁾	15개 민간 연구소 ²⁾
실질GDP 증가율	1.3	1.6	2.0	1.6
민간최종소비지출	1.3	1.2	1.3	1.1
민간주택투자	-12.7	-13.6	9.0	6.9
민간설비투자	0.9	0.9	3.3	3.0
공적고정자본형성	-6.1	-3.0	-4.9	-3.0
재화서비스 수출	7.1	9.0	5.2	4.8
재화서비스 수입	1.5	1.7	3.6	2.6
내수기여도	0.5	0.4	1.7	1.2
외수기여도	0.9	1.2	0.4	0.5

주: 1) 내각부의 2007년 12월 19일 발표 자료에 근거.

2) 15개 민간연구소의 예측치는 내각부의 2007년도 4/4분기 GDP 2차 속보 발표(2008. 3. 12) 이후 제시된 것들의 평균임.

3) 내각부의 2008년 1월 18일 발표 자료에 근거.

자료: 일본 내각부; 일본 15개 민간연구소.

<2008년도 일본경제 전망>

■ 지난 1월 일본정부는 2008년도 일본경제가 2.0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- 그러나 최근 일본의 15개 민간연구소가 제시한 2008년도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은 1.6%로, 일본정부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남.

■ 항목별 전망

- 개인소비: 고용·소득 환경의 개선이 크지 않고, 석유제품과 일부 식료품의 가격 상승으로 개인소비는 횡보세 정도의 추이를 보일 전망(1.1~1.3%)임.

- 주택투자: 전년도의 주택착공 대폭 감소에 대한 반동이 예상되나 주택투자의 회복세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(6.9~9.0%)됨.

- 설비투자: 높은 수준의 설비가동률 추이,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지속(이상 긍정적 요인), 원자재가격 급등과 내외수요 감속에 따른 기업수익 둔화, 높은 설비스톡 수준(이상 부정적 요인) 등의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6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(3.0~3.3%)됨.

- 공공투자: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공공지출 억제방침에 따라 10년 연속 감소할 전망(-4.9~-3.0%)임.

- 수출입: 신흥시장, 자원부국에 대한 수출확대 요인이 미국경제의 감속에 따른 감소 요인을 상회하겠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(4.8~5.2%)될 전망이다. 수입은 내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(2.6~3.6%)임.

■ 2008년도 일본경제 기조는 해외경제의 감속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소비·설비투자가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7년도에 이어 정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08년도 상반기에는 수출견인력 저하,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설비투자·고용소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반면, 하반기에는 주택투자·건축투자의 개선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회복되는‘상저하고(上底下高)’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■ 금융정책의 향방

- 일본은행은 3월 19일 이후 약 3주간 총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는데, 이는 무토 부총재를 총재로 승진시키자는 정부안에 대해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무성 출신 반대(재정-금융 분리)를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임.

- 4월 9일 선임된 시라카와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·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경기감축이 지속되겠지만 향후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함.
- 이에 따라 금융정책의 운영 방향으로서 지금까지의금리 정상화노선(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완만한 금리조정 실시)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한편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일본 이코노미스트의 60% 이상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, 내외 경기의 감소세 등의 우려 요인을 반영해 2009년 2월 이후로 응답하고 있으며, 오히려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응답도 약 10%에 달했음.
- o 일본은행은 2007년 2월 이후 현재의 정책금리(무담보 콜금리) 수준을 0.5%로 유지해오고 있음.

표 3. 일본 금리인상 시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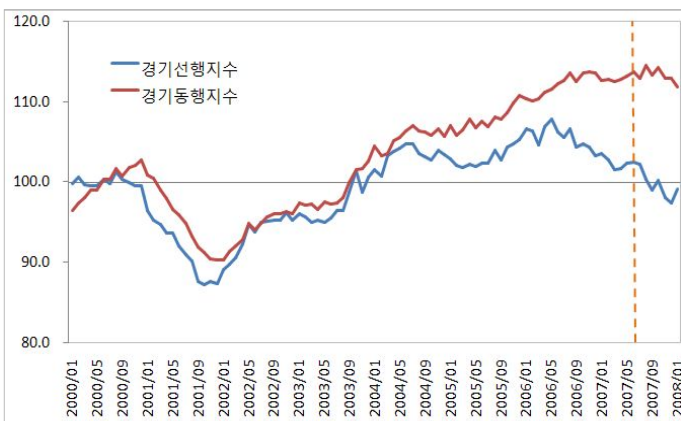
	2008년			2009년		인하	계
	3~10월	11월	12월	1월	2월 이후		
응답자 수	0	1	6	2	19	3	31

주: 일본 내 36명의 이코노미스트(조사기관 포함)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.
 자료: 経企画協(2008. 3. 11), 『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』.

4. 맺음말

-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어 왔으나 200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내외의 마이너스 요인에 의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- 일본 경제기획협회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경기후퇴로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42%를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3%포인트 상승함(3월 조사 결과).
- 일본의 경기지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후퇴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.

그림 5. 일본의 경기종합지수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(<http://www.esri.cao.go.jp/>).

- 2008년도 일본경제의 특징은 전년도와 달리 해외수요보다는 국내수요에 의해 견인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임.
- [표 2]에서 보았듯이 민간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, 2008년도 일본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국내수요는 1.2, 해외수요는 0.5로 나타남.
- 주택투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, 보다 중요한 것은 GDP의 절반 이상(55%)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 일본정부로서는 성장촉진을 축으로 하는 구조개혁을 재실시하여 국내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.
- 2008년도 일본경제의 부진은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2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% 증가(누계 기준)했으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음. 따라서 끊임없는 제품 및 기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, 이와 함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대응도 요구됨.
-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추세하에서 내수부문의 성장전인력을 제고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함. KIEP